

제 1 교시

국어 영역

홀수형

정답

1	④	2	②	3	④	4	③	5	⑤
6	①	7	⑤	8	①	9	④	10	⑤
11	②	12	⑤	13	②	14	④	15	④
16	②	17	②						

[1~2] 2013.07B 독서법

1. 밑글의 필자인 'A'와 <보기>의 필자인 'B'의 독서 태도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나는 대학 졸업 후 회사 생활에 유용한 실용 도서를 집중해서 읽었지만 이런 독서는 회사 생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다양한 인간 군상의 삶이 펼쳐진 대하소설을 찾아 읽었다. 대하소설을 읽으니 사회와 다양한 인간형을 이해하게 되어, 회사 동료들과의 원만한 관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 ① A는 B에 비해 재미와 흥미를 위한 독서를 선호하는군.  
→ A는 책을 통해 세상의 이치를 알고, 마음을 바르게 하고자 한다. 이는 재미와 흥미를 위한 독서라고 보기는 어렵다.
- ② A는 B에 비해 최신의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독서를 강조하는군.  
→ A는 오래전 쓰인 선현들의 책을 읽을 것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 ③ A는 B와 달리 관심 분야의 정보를 얻기 위한 독서에 초점을 맞추고 있군.  
→ B는 관심 분야인 회사 생활에 도움이 되는 독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 ④ B는 A에 비해 생활의 문제와 관련된 독서를 중시하고 있군.  
→ A는 세상의 이치와 관련된 내용의 책에 대해 다루고 있는 반면 B는 대하 소설과 같은 생활의 문제와 관련된 독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하다.
- ⑤ B는 A에 비해 다양한 분야의 식견을 넓히는 독서를 주장하는군.  
→ A는 독서를 통해 사물의 변화에 통달하여 식견을 신장시키고자 한다. 반면, B는 단순히 회사 생활에 도움을 얻고자 할 뿐이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2. 밑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독서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좋은 책을 선정해서 읽어야 한다.  
→ 3문단에서 이단 잡류의 바르지 않은 책은 보아서 안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적절하다.
- ② 전체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며 읽어야 한다.  
→ 1문단에서 책의 구절마다 실천 방법을 구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전체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는 것이 아니라 구절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며 독해하는 태도를 말한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 ③ 책을 정독하여 깨달은 것을 내면화해야 한다.  
→ 1문단에서 책을 읽으면서 마음으로 본받고 몸으로 실행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적절하다.
- ④ 책에 담긴 뜻과 취지를 완전히 깨우쳐야 한다.  
→ 4문단에서 책을 읽으며 책을 숙독하여 뜻과 취지를 모두 깨달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적절하다.
- ⑤ 바른 자세를 취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읽어야 한다.  
→ 1문단에서 독서를 할 때에 바른 자세, 공경히 책을 대하며 온전한 마음으로, 정순한 생각으로 읽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적절하다.

## [3~6] 2007.03 과학

## 3. 윗글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것은?

- ① 세포의 형질은 유전정보와 관련이 있다.  
→ (가)문단에 따르면 각 세포의 형질이 나타나도록 하는 정보는 세포 안의 유전자에 있다. 따라서 적절하다.
- ② 인간의 성격은 유전정보의 영향을 받는다.  
→ (가)문단에서 생물학적 연구가 유전 정보가 성격을 결정할 수 있다는 생각을 이끌어 내었음을 언급하고 있고, (나)문단에서 유전적 요인이 인간의 성격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적절하다.
- ③ 일부 유전병의 원인 유전자를 규명하였다.  
→ (다)에 따르면 인간의 유전병 중 원인 유전자가 규명된 유전자가 100여가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적절하다.
- ④ 유전자 연구에 힘입어 유전병을 치료하고 있다.  
→ 유전병 치료와 관련된 내용은 윗글에서 확인할 수 없다.
- ⑤ 유전자의 상호 관계 규명은 유전학의 과제이다.  
→ (라)문단에서 유전자의 상호 관계와 역할을 밝히는 것이 어렵다고 언급하고 있고, (마)에서 유전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유전정보를 갖고 있는지 밝히는 것이 연구자들의 과제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적절하다.

## 4. ㉠의 결과 중, 윗글의 논지에 부합하는 것은?

- ① 일란성 쌍생아인 A와 B는 동일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성격이 판이하다.  
→ 일란성 쌍생아가 동일한 환경에서 성격이 달랐다면 환경이나 유전자가 아닌 다른 요소가 성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에 이를 것이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 ② 이란성 쌍생아인 C와 D는 다른 환경에서 자랐지만 성격이 흡사하다.  
→ 이란성 쌍생아는 서로 다른 유전자를 갖는다. 이 두 대상이 다른 환경에서 자랐음에도 성격이 흡사하다는 결과는 (나)의 논지인 유전자가 성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에 영향을 주기 어렵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 ③ 이란성 쌍생아인 E와 F는 동일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성격이 판이하다.  
→ 서로 다른 유전자를 가진 이란성 쌍생아가 같은 환경에서 다른 성격을 갖는다면 환경이 아닌 유전자가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④ 일란성 쌍생아인 G와 H는 다른 환경에서 자라서 성격이 판이하다.  
→ 같은 유전자를 가진 일란성 쌍생아가 다른 환경에서 성격이 다르다면 환경이 성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즉, 윗글의 논지와는 부합하지 않는다.
- ⑤ 이란성 쌍생아인 I와 J는 동일한 환경에서 자라서 성격이 흡사하다.  
→ 다른 유전자를 가진 이란성 쌍생아가 동일한 환경에서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면 환경이 성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즉, 윗글의 논지와는 부합하지 않는다.

5. 글의 흐름을 고려할 때 <보기>를 활용하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유전자 검사기관들이 과학적 입증이 불확실한 유전자 검사를 무분별하게 실시, 그 폐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유전자 검사를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 △△일보 -

- ① 글 (가)
- ② 글 (나)
- ③ 글 (다)
- ④ 글 (라)
- ⑤ 글 (마)

[해설] (마)에서 유전자 연구와 관련된 실험 결과가 사실로 입증될만큼 충분하지 않고, 유전자 연구의 결과를 활용하는 것에 있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하는 것에서 <보기>의 과학적 입증이 불확실한 유전자 검사를 제한하는 내용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6. 윗글을 읽은 독자가 <보기>에 대해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우생학자들은, 전쟁으로 건강한 청년들은 전사하고, 징집되지 않은 약자가 살아남아 2세를 만든다고 생각했다. 결국, 알코올중독자와 신체허약자만 남겠다고 한탄하면서,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허약자와 병자의 증가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치 정권은 불치병환자나 정신병자 등을 ‘살 가치 없는 삶’으로 간주하여 30여만 명의 허약자들을 거세하였다. 또 그들은 ‘바람직하지 않은 성향’을 지녔다고 하여 유태인이나 반체제인사 수백만 명을 학살하였다.

- ① 나치 정권 몰락 후 우생학 연구는 상당히 활발해졌겠군.  
→ 우생학자들의 주장으로 인해 유태인이나 반체제 인사와 같은 이들이 학살되었으므로 나치 정권 몰락 이후에는 우생학 연구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나치 정권 몰락 이후 우생학 연구는 위축되었을 것이다.
- ② 나치 정권의 우생학자들은 유전자의 역할을 맹신했겠군.  
→ 우생학자들은 허약자와 병자의 유전자가 2세를 만들지 못하게 하기 위해 거세하였다. 이는 유전자의 역할을 지나치게 맹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나치 정권은 유전자 연구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했겠군.  
→ 나치 정권에서 우생학자들의 주장을 활용하여 반체제인사들을 학살하였으므로 정치적 목적으로 유전자 연구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나치 정권은 민족마다 독특한 유전정보가 있다고 보았군.  
→ 나치 정권은 유태인이라는 민족에 ‘바람직하지 않은 성향’이 있다고 보았으므로 민족마다 독특한 유전정보가 있다고 보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 ⑤ 나치 정권의 우생학을 이용한 인권 유린이 상당히 심했군.  
→ 나치 정권은 우생학자들의 주장을 근거로 하여 거세, 학살을 행했으므로 우생학을 이용하여 인권을 유린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하다.

[7~11] 2018.03 송순 '면앙정가', 나위소 '강호구가', 채수 '석가산폭포기'

7.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가)와 (나)는 음보를 규칙적으로 사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가)와 (나) 모두 4음보의 율격을 지키며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② (가)와 (다)는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 (가)의 '온가짓 소리로 취흥(醉興)을 비야거니'에서, (다)의 '폭포 소리가 마치 요란한 관현악기 소리 같아서 귀를 즐겁게 한다.'에서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상황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나)와 (다)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 주관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나)의 '연하(煙霞)의 집피 든 병(病)은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병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고, '물결이 비단 일다'는 물결을 비단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다)의 '폭포 소리가 마치 요란한 관현악기 소리 같아서 귀를 즐겁게 한다.'에서 폭포 소리를 관현악기 소리에 비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하다.

④ (가)~(다) 모두 다른 대상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가)의 '내 백년(百年)을 다 누리면 악양루상(岳陽樓上)의 이 태백(李太白)이 사라 오다'에서 자신과 이태백을 비교하고 있고, (나)의 '어조(漁釣)을 생애(生涯)하·니 험 업슨 아하· | 들은 괴롭다 하· 건마니· 니 두어라 강호한적(江湖閑適)이 내 분(分)인가 하· 노라'에서 낚시질을 즐기는 자신과, 낚시질을 괴롭게 여기는 사람들을 비교하고 있다. (다)에서는 자신과 산을 좋아했던 옛사람들, 세상의 호걸들을 비교하고 있다. 따라서 적절하다.

⑤ (가)~(다) 모두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을 이동하며 심리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가)~(다) 모두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을 이동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8. <보기 1>의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적절한 내용만을 <보기 2>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보 기 1 >—

선생님: (가)와 (나)는 벼슬에서 물러난 작가들이 귀향한 후의 삶을 표현한 작품으로, 우리 문학사에 나타나는 시가의 특정한 경향을 보여 주고 있어요. 두 작품을 살펴보면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데, 무엇인지 확인해 볼까요?

—< 보 기 2 >—

ㄱ. 임금의 은혜를 떠올리며 감사하는 태도가 드러나 있습니다.  
ㄴ. 속세와 거리를 두고 지내는 삶의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ㄷ. 자연에서 느끼는 흥취를 타인과 나누려는 마음가짐이 드러나 있습니다.  
ㄹ. 궁핍한 생활상을 보여 주면서도 그것을 수용하는 자세가 드러나 있습니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ㄱ, ㄷ, ㄹ

[해설]

ㄱ. (가)의 '이 몸이 이렇굽도 역군은(亦君恩)이샷다', (나)의 '그러나 이제 다 못 죽음도 귀 성은(聖恩)인가 하· 노라'에서 임금의 은혜를 떠올리며 감사하는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ㄴ. (가)의 '인간(人間)을 썬나 와도 내 몸이 겨를 업다', (나)의 '강호(江湖)에 바리연디\* 십년(十年) 밧기 되어세라'에서 속세와 거리를 두고 지내는 화자의 삶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ㄷ. (가)의 '술리 닉어거니 벗지라 업슬소냐'에서 자연에서 느끼는 흥취를 타인과 나누려는 마음가짐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나)의 '백구(白鷗)야 하 즐겨 말고려 세상(世上) 알가 흥노라'에서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화자가 느끼는 자연의 흥취를 알지 못하기를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ㄹ. (가)와 (나) 모두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며 궁핍한 생활상이라고 판단할만한 내용은 없다.

9.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주변에 즐길 것이 많다고 인식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 ㉠은 오늘 자연을 즐길 시간도 부족하고, 내일 자연을 즐길 시간도 부족하다는 의미이다. 즉, 즐길 것이 너무 많아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므로 주변에 즐길 것이 많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 자신의 풍류 생활에 대한 자부심이 나타나고 있다.  
→ ‘호탕정회(浩蕩情懷)’는 ‘넓고 끝없는 정과 회포’라는 뜻이다. 따라서 ‘호탕정회(浩蕩情懷)야 이에서 더홀소냐’는 넓고 끝없는 정과 회포가 여기서 더할 수 없다. 즉, 자신의 풍류 생활이 최고라고 여기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 ③ ㉢: 자연에 대한 깊은 애정이 드러나고 있다.  
→ ‘연하(煙霞)’는 자연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연에 깊은 병이 들었다는 것은 자연에 깊은 애정을 갖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 ④ ㉣: 옛사람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석가산을 만든 것에 대한 보람이 나타나고 있다.  
→ ‘그러나 나처럼 연못의 한가운데 산을 만들고 사면이 물로 둘러싸인 곳에 물을 끌어들여 산 위에 폭포를 만든 사람은 없었다.’에서 필자는 옛사람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석가산을 만들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 ⑤ ㉤: 자신이 만든 석가산과 폭포에 대한 만족감이 드러나고 있다.  
→ ㉤에서 필자는 자신이 만든 경치가 산수화로도 다 그리지 못할만큼 대단하다고 말하며 자신이 만든 석가산, 폭포에 대해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0. <보기>를 참고하여 (다)를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조선 시대 사대부들은 요산요수(樂山樂水)를 통해 심미적 가치를 추구하며 심성을 수양하는 것을 이상으로 생각하였다. 그런데 아름다운 경치를 직접 찾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자기 집 정원에 산을 본뜬 조형물인 석가산을 만들어 완상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것은 하늘이 만들었든 사람이 만들었든 간에 본질은 같기 때문에 진가의 분별이 무의미하다는 인식과 관련이 있다. 이를 통해 사대부들은 석가산을 완상하면 산의 진경(眞景)을 찾는 것과 같은 즐거움을 느낄 수 있고, 삶에 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 ① 글쓴이는 노쇠하여 산과 물을 직접 찾기 어렵게 되자 별장의 정원에 석가산을 만들어 완상하고 있군.  
→ (다)의 1문단에서 글쓴이가 ‘나이가 많아 다리에 힘이 없어지니 어쩔 도리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에서 별장의 정원에 석가산을 만든 이유를 알 수 있다.
- ② 글쓴이는 요산요수를 위해 연못의 한가운데 석가산을 만들어 심미적 가치를 추구한 것으로 볼 수 있군.  
→ <보기>에서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요산요수를 통해 심미적 가치를 추구하였음을 알 수 있고, (다)의 3문단에서 연못의 한가운데에 석가산을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보기>에서 이러한 석가산은 산의 진경을 찾는 즐거움을 대신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③ 글쓴이는 산수화를 모아 감상하는 것만으로는 산의 진경을 찾는 것과 같은 즐거움을 느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군.  
→ (다)의 2문단에서 산수화로는 진실에 가깝게 생동하는 맛을 찾을 수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적절하다.
- ④ 글쓴이가 진가를 논하지 않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취하겠다고 강조한 것은 진가의 분별이 무의미하다는 인식과 관련이 있군.  
→ (다)의 7문단에서 글쓴이는 어느것이 가짜이고 진짜인지 구분하지 못하겠다고 말하며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취하겠다고 하였다. 따라서 적절하다.
- ⑤ 글쓴이가 석가산의 샘플에서 비롯된 세 가지 즐거움을 언급한 것은 석가산을 만드는 과정에서 느낀 고층과 깨달음을 통해 자신을 비웃는 사람들을 설득하려는 것이라 할 수 있군.  
→ (다)에는 글쓴이가 석가산을 만드는 과정에서 느낀 고층이 등장하지 않는다. 또한, 글쓴이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즐길 뿐,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11.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는 [A]에서 발생한 내적 갈등을 [B]에서 해소하고 있다.  
→ [A]에서 내적 갈등은 확인할 수 없다.
- ② '나'는 [A]에서 한 행위로 인해 [B]에서와 같은 즐거움을 얻게 되었다.  
→ [A]에서 '나'는 돌산에서 물이 솟어나게 만들었으며, 이는 [B]에서 시각, 청각적 즐거움과 차고 맛있는 물을 마실 수 있는 즐거움을 얻게 하였다.
- ③ [A]의 '계단'은 관념적 소재에, [B]의 '절벽'은 실재적 소재에 해당한다.  
→ [A]의 '계단'과 [B]의 '절벽'은 모두 실재적 소재로 볼 수 있다.
- ④ [A]의 '사람들'은 '물'을 긍정적으로, [B]의 '이웃들'은 '물'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 [A]와 [B] 모두에서 '사람들'은 '물'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 ⑤ [A]에서는 '물'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는 과정을, [B]에서는 '물'을 집 밖으로 흘려보내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 [B]에서 '물'을 집 밖으로 흘려보내는 과정은 확인할 수 없다.

[12~14] 2007.03 작자 미상 '흥부전'(경판 25장본)

12.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서술자가 개입하여 상황을 소개하고 있다.  
→ 초반부에 흥부의 성격을 설명하는 것에서 서술자의 개입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하다.
- ② 운율감이 느껴지는 어투가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 흥부가 놀부의 집에 건너갈 때, 놀부가 쌀을 줄 것을 거절할 때 운율감이 느껴지는 어투가 사용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하다.
- ③ 현실에서는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 박에서 사람이 등장하는 것은 현실에서는 일어나기 어려운 초현실적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하다.
- ④ 평민 계층의 언어와 양반 계층의 언어가 혼재되어 있다.  
→ 비속어를 사용하는 것에서 평민계층의 언어를, 한자성어나 고사를 말하는 것에서 양반 계층의 언어가 혼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하다.
- ⑤ 전체적으로 상황을 요약적으로 제시하여 사건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 위 글은 사건을 장황하게 서술하는 만연체의 서술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상황을 요약적으로 제시하여 사건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는 서술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

13. 윗글의 등장인물에 대한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놀부는 남존여비적인 사고로 놀부 처를 꾸짖고 있군.  
→ 놀부는 박을 타지 말라는 아내의 말에 ‘좀스러운 계집년이 무슨 일을 아는 체 하여 방정맞게 날뛰는가’라고 하며 남존여비적인 사고로 놀부의 처를 꾸짖고 있다.
- ② 께보는 놀부의 책망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군.  
→ 께보는 ‘네 콧소리에 보화가 변하였는가 싶으니’라는 놀부의 책망에 가만히 있다가 그 후에 탄 박에서 시주승이 등장하니 놀부를 비웃는다. 이를 통해 놀부의 책망에 대해 께보가 잘못을 시인하고 있다는 진술은 잘못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흥부는 형제 간의 우애를 내세워 놀부에게 도움을 간청하고 있군.  
→ 흥부는 옛일을 생각하여 자신과 처자식을 살려달라고 놀부에게 빌고 있다. 이는 형제간의 우애를 내세워 놀부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놀부는 흥부를 일면식도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며 박대하고 있군.  
→ 놀부는 흥부에게는 줄 것이 없다고 하며 일면식도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고 있다.
- ⑤ 흥부는 놀부의 평소 성품을 들어 흥부 처의 요구에 난감해하고 있군.  
→ 흥부는 놀부집에 가서 쌀을 얻어오라는 아내의 말에 매를 맞을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14. ㉠~㉣을 통해 추리할 수 있는 시대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고루한 명분에 집착하기보다는 실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었다.  
→ ㉠은 청렴보다는 처자식을 먹여살리기 위해 형의 집으로 가라는 발화는 명분보다는 이익을 추구하라는 뜻이므로 적절하다.
- ② ㉡: 기존의 신분 제도가 흔들리면서 몰락한 양반이 생겨났다.  
→ ㉡은 흥부의 외양으로 굉장히 가난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신분 제도가 흔들리며, 몰락한 양반이 생겨나는 서술은 적절하다.
- ③ ㉢: 돈과 재물에 대해 강한 집착을 보이는 태도가 널리 퍼져 있었다.  
→ ㉢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흥부에게 줄 돈은 없다는 놀부의 발화로 돈과 재물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이는 태도가 널리 퍼져있다는 추리는 적합하다.
- ④ ㉣: 가족 간의 결속력이 점차 약해져 경로사상도 약화되었다.  
→ ㉣은 흥부가 자신을 박대하는 놀부에 대해 원망하고 있는 구절이다. 이로 인해 형제간의 우애가 깊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으나, 그로 인해 경로사상이 약화되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 ⑤ ㉤: 계약적 고용 관계를 토대로 하는 임금 노동자가 등장했다.  
→ ㉤은 놀부가 돈을 주고 께보에게 일을 시키는 것으로 보아 계약적 고용 관계를 토대로 하는 임금 노동자가 있다는 서술은 적절하다.

[15~17] 2016.03 예술

15. 윗글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단토가 파악한 내러티브로서의 예술사  
→ 4문단에서 단토가 예술사를 내러티브의 역사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하다.
- ② 단토가 예술 종말론을 주장하게 된 계기  
→ 1문단에서 단토가 워홀의 <브릴로 상자>의 전시회를 계기로 예술 종말론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 ③ 단토의 예술 종말론이 지닌 긍정적 함의  
→ 5문단에서 단토의 예술 종말론은 예술이 추구해야 할 방향이 없고, 예술이 성취해야 하는 과업에 대한 고민이 필요 없는 시기가 되었기에 낙관적 전망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적절하다.
- ④ 단토가 제안한 예술계의 지위 회복 방법  
→ 단토가 예술계의 지위 회복 방법에 대해 제안한 내용은 지문에서 확인할 수 없다.
- ⑤ 단토가 제시한 예술 작품이 갖추어야 할 필수 조건  
→ 2문단에서 단토는 예술 작품이 갖추어야 할 필수 조건으로 '무엇에 관함(aboutness)'과 '구현(embody)'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적절하다.

16. 윗글의 내용으로 보아 '단토'의 견해에 부합하기 어려운 진술은?

- ① 오늘날의 예술이 무엇인가 알기 위해서는 감각으로 경험하는 것을 넘어 철학적으로 사고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 4문단에서 예술은 모방에서 벗어나 철학적 내러티브로 변화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모방은 감각적 경험에 불과하지만 철학적 내러티브는 철학적으로 사고하는 접근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② 예술 작품의 본질을 정의하려던 과거의 시도가 결국 실패한 것은 그것을 근본적으로 정의할 수 없기 때문이다.  
→ 단토는 예술 작품이 '무엇에 관함(aboutness)'과 '구현(embody)'이라는 두가지 요건과 예술계 개념에 의해 예술 작품의 지위를 얻는다고 보았다. 즉, 단토는 예술 작품을 정의할 수 없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 ③ 실제 사물과 달리, 예술 작품은 그것을 예술로 존재하게 하는 지식과 이론 등에 의해 예술 작품으로 인정받는다.  
→ 3문단에 따르면 어떤 대상이 예술 작품의 지위를 얻을 때, 당대 예술 상황을 주도하는 지식과 이론, 태도를 포괄하는 체계인 예술계에 의해 인정받게 된다.
- ④ 예술의 종말 이후에도 시각적 재현을 위주로 하는 그림은 그려지겠지만, 그것이 재현의 내러티브를 발전시키지는 않는다.  
→ 4문단에서 시각적 경험을 가져다 주는 정확한 재현이 예술의 목적이라는 기존의 내러티브가 흔들리며, 모방에서 벗어나 철학적 내러티브로 변화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예술의 종말은 이전의 내러티브가 종결되고 예술이 철학적 단계에 이른 것이므로 시각적 재현을 위주로 하는 그림이 그려지더라도 이미 종결된 재현의 내러티브를 발전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 ⑤ 특정한 사고는 특정한 발전 단계에 이르러서야 생각될 수 있으므로 한 시기에 예술 작품일 수 있는 것이 다른 시기에는 예술 작품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도 있다.  
→ 3문단에서 <브릴로 상자>가 더 이른 시기에 등장했다면 예술 작품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지 못했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 시기에는 예술 작품일 수 있는 것이 다른 시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17.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A) (B) (C)

(A)는 인상주의 화가인 폴 세잔의 <세잔 부인의 초상>이다. (B)는 미술 평론가인 로랭이 자신의 책에서 (A)의 양감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다이어그램이다. (C)는 로랭의 책이 출간된 이후에 리히텐슈타인이 그린 <세잔 부인의 초상>이다. 단토는 (B)는 (A)의 양감을 잘 보여 주고 있지만 미술 작품은 아니고, (C)는 세잔이 바라보는 세계를 위트 있게 표현한 미술 작품이라고 말했다.

- ① (A)는 대상의 외관을 재현한 것으로, '바자리의 내러티브'에 의해 미술 작품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 (A)는 대상을 재현한 것으로 4문단에 언급된 바자리의 내러티브에 의해 미술 작품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따라서 적절하다.
- ② (B)는 예술에 대한 철학적 의문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A)와 다르다.
  - (A)와 (B)는 모두 철학적 의문을 드러내지 못한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 ③ (C)를 미술 작품이라 한 것은 예술이 철학적 단계에 이르러 그 이전의 내러티브가 종결되었음을 보여 준다.
  - (C)가 미술 작품으로서의 지위를 얻는 것은 철학적 내러티브에 이르러 그 이전의 재현의 내러티브가 종결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절하다.
- ④ (A)와 (C)가 미술 작품이라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대 예술 상황을 주도하는 믿음 체계에 대한 지식이 선행적으로 필요하다.
  - 2문단에 따르면 미술 작품의 지위를 얻으려면 당대 예술 상황을 주도하는 믿음 체계에 대한 지식, 이론, 태도를 포괄하는 개념인 예술계가 필요하다.
- ⑤ (B)와 (C)는 지각적으로 유사해 보이지만, (B)는 해석되어야 할 주제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미술 작품이라고 할 수 없다.
  - (C)는 철학적 내러티브에 의해 해석되어야 할 주제가 존재하지만, (B)는 단순히 양감을 설명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일상의 사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C)는 미술 작품으로, (B)는 일상의 사물로 해석된다.